

“외교안보 큰 변화… 한일관계 개선, 한미동맹 재건 등 성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소회
“사우디 40조, UAE 39조 투자유치
스타트업, 중소기업 도약에 큰 힘”

“나토정상회의 계기 방산수출 성과
NCG 창설로 美, 한국에 방위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앞둔 9일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 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며 한일관계 개선, 한미동맹 재건 및 강화, 세일즈 외교 등을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취임 1년의 소회와 성과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를 부각시키며 외교에 대해서는 취임 후 1년 동안 해외 순방에서 거둔 세일즈 외교 성과를, 안보와 관련해서는 한미동맹 재건과 한일관계 정상화,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고 정상 세일즈 외교를 폈다”며 “앞으로도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와 해외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 성과로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 방한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계기로 한 약 40조원에 달하는 26건의 업무협약(MOU) 체결,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계기의 300억달러(약 39조 7440억원) 투자유치를 꼽으며 “이러한 대규모 오일머니의 국내 투자를 통해 우리 유망 스타트업, 벤처,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취임 후 11일 만에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재건됐다”며 “작년 6월에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자유의 연대를 구축하고, 글로벌 안보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산 수출 성과도 이뤄졌다”며 “이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세계 4대 수출국을 목표로 한창 나아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도 탈바꿈했다”며 3축 방어체계 강화, 한미연합훈련 재개 및 실전훈련 강화, 한미상호방위조약행능력 기반 업그레이드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지난 4월말 국빈 방미 계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끌어 낸 ‘워싱턴선언’을 언급하며 “정상 차원의 합의 문서 도출과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통해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를 약속했다. 대한민국은 미 핵자산 운용에 대

한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통해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일요일 기시다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는 12년 만에 대한민국을 양자 방문했다”며 “3월 16일 일본 방문으로 재개된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기까지 12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경제·산업·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단 한국 전문가 파견,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계기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 한일 정상 공동참배를 언급했다.

아울러 G7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간 대북 확장억제 강화에 이어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 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각 부처는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협력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고 진행시켜 우리 국민이 그 혜택을 직간접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지난 70년간 주권 평등,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규범에 기반해 질서를 구축하고 자유, 평화, 번영을 구현해왔다”며 “우리 헌법은 정부와 국민에게 이러한 국제규범도 국내법과 같이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분쟁의 군사적 해결과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해 왔다”며 “특히, 안보와 경제가 국제 협력하에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국제규범의 존중과 준수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더 늘려야”

》1면 ‘어떻게 죽어야 할 것’서 계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앙호스피스센터인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병동의 경우, 호스피스 병상이 부족해 입원 대기 중 사망에 이르는 환자가 지난 2021년에서 2022년까지 198명에 달했다.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병동의 연도별 평균 대기인원은 2020년 457명, 2021년 368명이었다.

정부는 민간과 공공의 호스피스대기 환자 중 사망자 현황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난해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부 차원에서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제도 정착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다. 젊은 층은 둘째치고, 노년층에서 굉장히 공감대가 넓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문제는 사람들을 수용할 시설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연명 의료를 중단하면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던가, 본인 집에서 삶을 마치는 것인데, 자택으로 갈 경우 아파트 등 우리의 집 구조상 사실상 감당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접근성도 확대해야 한다. 기존 의료기관·지역 보건 의료기관에서 노인복지관을 추가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넓어졌으나, 사실상 더 늘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해당 업무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팀이 지난 2021년 5월 7일 오후 어버이날을 앞두고 병동 입원 환자를 찾아 카네이션과 직접 만든 비누, 방향제 등을 전달하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 대상환자 서비스 이용률 현황>(2022.07 기준) /보건복지부·인재근 의원실 재편집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용률(%)	15.0	17.5	22.0	22.9	24.3	23.0

를 수행할 인력과 그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며 “또한, 사전연명의료결정을 가족이나 친척, 친지와 공유하는 문화의 확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웰-다잉’ 정부 공적 역할 충실해야

정계은퇴후 ‘웰-다잉(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품위를 지키며 삶을 마무리하는 것)’ 운동에 투신하고 있는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도 호스피스 병동 부족 문제에 대해 “병원 입장에서 말기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게 엄청난 매출이 온다. 온갖 처치 다 하고 수술하고 신약을 쓰면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한다. 하지만 정신과 육체의 안정, 편안함을 주는 호스피스 병동 운영은 비용 대비 편익이 나오지 않는

다”고 말했다.

원 공동대표는 “이런 이유로 민간 병원은 호스피스 병동을 만드는 것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투자가 절실하다. 코로나19 대응행 때 호스피스 병동 상당수가 코로나19 대응 시설로 전환됐다. 이를 재빨리 원위치 시키고 공공부문에 투자해 확충을 해나가야 한다”며 “연명의료결정법 제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명의료 등록기관을 늘리고 ‘웰-다잉’에 대한 조례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관광객 사상최대?… 실상은 ‘짚내투어’

● 차이나 뉴스&리포트

노동절 연휴 여행객 19% 늘었지만
매출 1480억 위안, 0.7% 증가 그쳐
“줄어든 소비, 낙관론은 시기상조”

올해 중국 노동절 연휴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린 곳은 쑤보(淄博)였다.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공업 도시로 중국인들조차 잘 알지 못했던 곳에 하루 평균 10만명의 관광객을 불러모은 것은 다름 아닌 꼬치구이다.

한국돈 1만원이면 30개는 먹을 수 있는 싸고 푸짐한 꼬치구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소문이 나면서 호텔 객실 점유율이 중국 전역을 통틀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동절 관광객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지만 중국 경제를 보는 시각은 오히려 더 어두워졌다. 그간 못했던 여행을 떠나기는 하지만 쑤보와 같이 돈은 가능한 아끼는 전형적인 불황형 소비를 그대로 보여주면서다.

9일 중국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노동절 연휴 기간 중국 내 여행객 수는 2억 7400만명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19.1% 늘었지만 여행 매출액은 1480억위안으로 0.7% 증가에 그쳤다.

인당 소비 금액으로 보면 540위안으로 2019년 603위안을 밑돈다. 지난 3년간 경제성장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제 소비는 2019년 대비 90%선이 아니라 한참 떨어진다. 교통이나 입장권 같이 비용은 고정됐으니 먹고 마시는 데 쓰는 돈을 크게 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로이터는 “중국 관광객들의 귀환은 국내외적으로 안도감을 줬지만 줄어든 소비를 보면 어떤 낙관론도 시기상조가 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값싼 꼬치구치가 중국 관광객들에게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이번엔 여행 검색어로 상위에서 오른 것은 ‘특전사여행(特種兵旅游)’과 우리말로 짚내투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가난한 여행(窮游)’이었다.

특전사여행은 짧은 시간에 가능한 한 많은 관광지를 보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이전엔 대학생들이나 선호했지만 이제는 일반적인 여행 방식 중 하나가 됐다.

반면 럭셔리 리조트와 대규모 면세점이 준비해 최고 휴양지로 유명한 하이난은 각광을 받지 못했다. 하이난 해관에 따르면 노동절 기간 하이난 면세 매출은 8억8000만위안으로 2021년보다 22% 줄었다.

폭발한 보복여행에도 중국면세그룹과 여행 플랫폼 기업인 씨트립, 통청위싱 등의 주가는 일제히 부진을 면치 못했다.

신영증권 성연주 연구원은 “중국 경제지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이 가계 수요이고, 이에 따라 향후 여행 수요 역시 지속될 수 없다는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됐다”며 “가계 소득 감소로 소비 부진이 여전히 부동산 등 경기 회복 조짐이 완연히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